

전환기가 된 19~20 세기의 시모노세키, 모지, 그리고 일본

에도 시대 후기에서 메이지 시대 초기(1853~1868)

일본은 19 세기 후반 외국과의 교류를 시작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1630 년대 도쿠가와 정권은 외국 무역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민의 출국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 정책은 동란이나 식민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외부의 영향(특히 기독교 선교사)을 막기 위한 것으로 ‘쇄국’ 정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854 년 미국의 특사 매슈 페리 제독(1794~1858)이 군함을 이끌고 내항하여 일본에 개항을 강요할 때까지 일본은 거의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군함을 동원해 외교적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무력 외교’라고 불림)은 다른 서양 국가들도 따라 했습니다. 1858 년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각각 외국 측에 유리한 무역, 외교적 특권을 부여하는 불평등 조약을 일본에 맺게 했습니다. 이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일본의 재정과 사회는 불안정해져 갔습니다. 이 조약으로 외국 무역상은 금, 은과 기타 자산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일본에서 반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통화는 약화되었고, 외국인은 일본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으나 근대화를 지지하는 파벌조차 불평등 조약에는 분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슈(현재의 야마구치현)와 사쓰마(현재의 가고시마현)는 혁명적이었으며 외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장 강했습니다. 혁명의 리더들은 도쿠가와 정권을 무너뜨리고 천황의 권력을 회복하여 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구미 제국에 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 속에서 천황을 받드는 무사들은 ‘천황을 받들고 외국인을 몰아내자’(존왕양이)를 슬로건으로 삼아 결집했습니다. 1863 년 고메이 천황(1831~1867)이 외국을 배제하도록 명령하자 조슈군은 재빨리 간몬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과 유럽의 배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이 공격은 조슈와 서양 세력의 충돌을 초래하는 동시에 도쿠가와군과 조슈·사쓰마 연합군의 충돌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전투로 인해 1867 년 도쿠가와 정권의 마지막 쇼군이 퇴진하고 메이지 천황(1852~1912) 아래에서 신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근대화(1868~1889)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메이지 신정부는 서양의 통치, 군사, 경제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1871~1873)처럼 정부의 관료와 유학생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외국 문화와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해외의 전문가를 일본으로 초청해 지도와 인프라 정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에 문화·산업혁명을 가져왔고, 서양의 기술, 군사 과학, 문학, 음악, 음식, 패션이 일본에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급격한 개혁으로 사회 구조마저 크게 변했습니다. 정부는 에도 시대(1603~1867)의 엄격한 사회 계층을 해체하고 구 귀족, 구 관료(무사), 구 서민의 3 가지 계급으로 이뤄진 새로운 제도로 고쳤습니다. 몇 세기 만에 하층 계급은 자신의 직업과 생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위와 수입을 잃은 이전의 무사들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봉기와 항의 운동이 일본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중앙집권화된 새로운 군대를 동원해 이 소란에 대처했고 헌법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지를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전 조슈의 무사였던 이토 히로부미(1841~1909)는 해외로 가 서양의 헌법 제도를 연구했습니다. 1889 년, 프로이센 헌법을 모델로 한 메이지 헌법이 시행되며 한정적인 민주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성장과 군사 정복(1877~1945)

1877 년에는 일본의 산업을 국내외에 소개하기 위해 일본 최초 내국 권업 박람회가 열렸고 그다음에 불과 4 년 뒤에도 열렸습니다.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80 년대로 당시에는 섬유 등의 경공업이 중심이었지만, 10 년 후에는 조선, 석탄 채굴, 철강 등의 중공업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당초에는 정부 소유였는데,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1887 년에 나가사키의 조선소를 미쓰비시 재벌에 매각했고, 1889 년에는 대규모 민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이케 탄광을 미쓰이

재벌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조선업과 석탄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민간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산업들은 또한 간몬 해협 지역 발전의 열쇠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일본 열도에 기항하는 선박에 있어서 중요한 석탄 비축 기지이자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예술,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이와 함께 ‘해외 진출’ 역시 일본이 국가의 정체성에 받아들인 서양 문화였습니다. 1850년대부터 외국인 고문이 군사 개혁을 도왔는데, 메이지 정부는 광범위한 개혁을 실시했고 1880년대부터 학교에서의 군대식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군대는 곧 이웃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청일 전쟁(1894~1895)과 러일 전쟁(1904~1905)에서 일본은 근대적인 육군과 해군을 시험했고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를 물리쳤습니다. 간몬 해협은 한국 동해·일본해를 건너 아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병사들의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승리로 일본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군사 정복과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성공으로 군부가 대담해지자 군은 일본 국내에서도 영향력과 권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암살을 선동했으며, 1936년에는 쿠데타 미수 사건까지 일으켰습니다. 군부 지도자의 권력과 영향력은 더욱 커져 국경을 점점 확장하게 했고, 중일 전쟁(1937~1945)을 일으키고 이윽고 제 2 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